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 개최결과

1. 행사개요

- 목 적 :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특별기획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짚어지고 나아갈 21세기 주역인 양국 미래세대간 대토론회를 통해 한일협력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한일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산
- 일 시 : 2015. 5. 30(토) 15:30~17:40
- 장 소 : 페럼타워 페럼홀 (3층)
- 참 가 자 : 88명(한국측 70명, 일본측 18명)
 - 한국 측 : 이종윤 부회장(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등 70명
 - 일본 측 :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일한경제협회 전무) 등 18명
- 주 최 : (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 패 널 : 한일학생미래회의 소속 대학생 10명(한일 각 5명)
- 후 원 : SBS, 한국경제신문사, 동국제강(주), SJC
- 테 마 : 청소년이 바라본 한일양국의 비전 ~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한일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력 ~

2. 프로그램

시간	내용	
14:30 ~ 14:55	등록/접수	
15:00 ~ 15:10 (10분)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인사 (각5분) - 한국측 대표 : (사)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 - 일본측 대표 : (일사)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이사
15:10 ~ 15:35 (25분)	발표1 (과거 5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 한국 1명 / 일본 1명 (각10분) ○주제 :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한일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취해야 할 노력" - 한국측 : 이상협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1학년 - 일본측 : 카네코 타카오 와세다대학 상학부 1학년
15:35 ~ 16:00	발표2	○발표 : 한국 1명 / 일본 1명 (각10분)

(25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주제 :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 한국측 : 김지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 일본측 : 오타 미츠아키 추오대학 법학부 2학년
16:00 ~ 16:30 (30분)	토론 1, 질의 응답	○발표1, 발표2 연계 토론, 질의 응답
16:30 ~ 6:40 (10분)	휴식	
16:40 ~ 17:05 (25분)	발표3 (매스컴의 역할)	○발표 : 한국 1명 / 일본 1명 (각10분) ○주제 : "성숙된 한일관계 매스컴의 보도 방향" - 한국측 : 최소정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 일본측 : 후루카와 타쿠 가쿠슈인대학 법학부 2학년
17:05 ~ 17:35 (30분)	토론2, 질의 응답	-발표3 연계 토론, 질의 응답
17:35 ~ 17:40 (5분)	폐회	

3. 개최결과 및 평가

-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짚어지고 나아갈 양국의 미래세대 간의 대토론회를 통하여, 청소년의 입장에서 한일 협력의 미래를 전망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음
- 양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오늘날의 한일관계를 분석해 보고 한일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력에 대해 인식을 공유
 - 한일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력
 - 복합골절 상태이자 과거에 갇힌 한일관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을 분리 대응
 - * 위안부 문제 : 민간주도의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
 - * 역사문제 : 한일역사공동위원회 재구성, 역사학자들이 진실 규명
 - 정치·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화·인적교류 활성화가 필요, 문화 콘텐츠의 발신에 의해서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
 - *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직접적인 교류의 기회확대가 필요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 이후 동북아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 창출과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 기대

- * 한중일 3국 간의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상호 협력의 토대 구축이 필요

○ 성숙된 한일관계 매스컴의 보도방향

-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 * 기자 간 선입관이 없는 상호이해 관계의 구축을 위한 기자 교류· 기자초청 행사 등 실시

- * 정치, 경제, 문화 등 중층적·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관계 개선의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

- 상업적· 이윤 추구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보도가 필요

- * 젊은 세대간의 민간 교류 활동을 보도함으로써 한일관계에 있어서 친근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

□ 한일고교생교류 캠프와 한일학생미래회의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국가를 초월한 소중하고도 진정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4. 발표내용 요약 (*녹취록 별첨)

가. 발표1

(1) 주제 :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한일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력

(2) 발표자 :

- 한국측 : 이상협 중앙대학교 아시아문화학부 1학년
- 일본측 : 카네코 타카오(金子 卓生) 와세다대학 상학부 1학년

(3) 내용 :

(가) 한일관계는 50년 동안 다양한 국면을 맞아왔음. 1965년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음. 그 이후, 여러 부속조약들도 체결되었음

(나) 한국은 특히 일본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고, 영토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어왔기 에 역사문제는 항상 양국관계에서 화두가 되었음.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 정부 차원에서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등을 발표하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단결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음

- (다) 아베총리 집권 이후 다시 양국관계는 경색되기 시작하였음. 일본 아베 총리는 국가의 옛 영광을 재현한다는 명목으로 아베노믹스와 군사력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음. 한국은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음. 늘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런 현상들로 볼 때, 한일관계는 ‘복합골절’ 상태임
- (라) 이 같은 복합골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사와 경제, 안보 협력 문제 등을 분리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역사 문제는 양국이 여러 전문가들과 학자들을 동원해 연구위원회를 만드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면서 양국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경제나 안보 협력 문제 등을 다루어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해 과거의 골레에서 벗어나 양국이 지역사회 전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임

나. 발표 2

(1) 주제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2) 발표자 :

- 한국측 : 김지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 일본측 : 오타 미츠아키(太田 光昭) 추오대학 법학부 2학년

(3) 내용 :

(가) ASEAN Economic Community (이하 AEC)가 ASEAN의 정치·안보, 사회·문화 그리고 AEC 경제의 3분야에서 공동체의 창설을 목표로 형성 될 예정임. AEC가 출범함으로써 인력, 재화, 자본의 움직임을 자유화, 그리고 관세를 철폐하고 보다 활발한 무역을 촉진, 또한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등 선발전 6개국은 2010년에 역내 관세를 거의 철폐하고 있지만, 나머지 베트남과 미얀마 등 4개국이 2018년까지 관세를 거의 철폐할 예정임. 이들에 의해 물론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생산 분업의 길이 열릴 것임

(나) 경제 공동체의 큰 단점으로는 역시 해외에서 저렴하고 다양한 물건이 시장을 점유해 각 국가별 시장이 세계화된다고 한다면 각 나라의 지역 산업이 쇠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관세 철폐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함 ASEAN은 실제로 국가 내 중소기업의 불만을 야기하며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실제로 지역 산업의 쇠퇴에 대한 대책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 일본과 한국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되어 관세가 철폐 되면 지역 산업의 쇠퇴를 앞당기게 되는 것에 불과함. 즉,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 여부에 따라 지역 산업 쇠퇴 속도만 달라질 뿐이며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가 형성된다 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님
- (라) EU는 유럽 연합 조약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EU에서 입법이 과반수만 넘기면 통과됨. 그러나 ASEAN의 경우, 법률 등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 만장일치가 필요해 움직임이 늦고 유연한 대응이 불가 함

다. 발표 3

(1) 주제 : 성숙된 한일관계 매스컴의 보도 방향

(2) 발표자 :

- 한국측 : 최소정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2학년
- 일본측 : 후루카와 타쿠(古川 拓) 가쿠슈인대학 법학부 2학년

(3) 내용 :

- (가) 현대 매스미디어의 정의와 역할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업으로서 경영되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보도되는 내용은 기업경영자, 정치세력과 독자·관중 등의 수요자들이 모두 관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수용자에 대하여 미디어가 발휘하는 효과는 매우 커서, 특히 국민심리, 의견, 동향, 취미 등은 매스미디어가 설정하는 방향으로 크게 기울어지기 쉬움. 특히 여론 형성 기능은 미디어의 영향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함
- (나) 한국의 경우 현재 일본의 혐한 논쟁과 아베정권과의 한일 외교가 틀어지면서 다시 부정적인 보도로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긍정적인 미디어로는 일본 유명 드라마의 리메이크, 일본 가수의 음악방송 출현,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에 대한 여러 기사들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일본에 대한 대부분의 보도들은 ‘일본 우경화’ 혹은 ‘위안부’ 문제 등, 한국인의 분노를 살 만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도록 하는 데는 양국 언론의 경쟁적인 반일·반한 보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려의 한 목소리 임
- (다) 일본에서의 한국보도의 경우 대중적인 한류가 확산하면서 혐한류 세력도 함께 확장하며 부정적인 보도가 커졌음. 보수우익의 대표적 시사주간지 ‘주간문춘(週刊文春)’, ‘주간포스트’ (11월 29일자), ‘사피오’ 등은 혐한 보도를 통해 지극히 감정적 이었고 주객전도 양상을 보였으며, 혐한 전문

사이트 문제들도 나왔음. 긍정적인 언론의 경우 “ 유튜브(Youtube)” 를 통한 한국 우호적 방송 및 한류를 좋아하는 일본 연예인들의 보도 등이 있음

- (라) 반일· 혐한 감정을 줄일 수 있는 보도와 기사가 나오는 데에는 첫째는 실리적인 측면, 두 번째는 서로를 비난하는 대상으로서 파악하고 버리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보도의 큰 문제점으로 정확성· 공정성· 품격이 떨어진다는 점과 국민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거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포함한 보도를 기반으로 이뤄진 여론이 형성되거나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권력의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임
- (마)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데 이상적인 언론의 기본 방향은 기자들 사이에서 선입견 없이 상호 이해관계의 구축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5. 토론내용 요약 (※ 녹취록 별첨)

가. 토론1 (발표1&발표2 연계토론)

(1) 주제 :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한일 공동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력"과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2) 내용 :

- (가) 정치나 역사문제를 문화, 인적 교류와 구분하여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 결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함. 정치, 역사문제, 문화와 인적 교류는 깊은 상호관련성을 띠고 있음
- (나) 한일관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나 역사문제가 갈등을 빚거나 양국이 외교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는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나 문화적인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음. 반면,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했을 때나 양국 정상들이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보였을 때, 한국과 일본의 교류는 최고조에 이르렀음. 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한국어, 일본어 학습자 수도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됨
- (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 등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이야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할 것임. 정치나 역사문제와 문화, 인적 교류가 깊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갈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문화교류나 인적 교류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함
- (라) 미래 한일관계를 이끌어 나갈 현 청소년들의 교류를 보다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켜 나가야 함.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한일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

- (마) 유럽의 통합 역사는 파리 조약을 기준으로 6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수많은 협의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지금의 EU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유럽의 통합과정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에 좋은 선행사례라고 생각함. 하지만 유럽의 통합과정을 바로 대입한다고 하여도 유럽과 같은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함
- (바) 동북아 3국의 FTA 논의는 2008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 3국은 ASEAN 국가들과도 다양한 일을 추진해 왔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북아가 협력할 수 있는 정치와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임
- (사) 지금 한국,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인 패권경쟁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경쟁의식은 바르지 않은 형태의 경제 질서를 만들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것임. 따라서 이 3국은 경쟁구도를 협력구도로 바꿔야 하는 것을 중점으로 생각해야 할 것임

나. 토론2 (발표3 연계토론)

(1) 주제 : 성숙된 한일관계 매스컴의 보도 방향

(2) 내용 :

- (가) ‘ 침묵의 나선이론’ 을 설명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미디어가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고 심화시키기 때문에 사회, 정치, 경제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좀 더 바라보아야 하며, 이러한 매스컴의 문제는 매스컴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
- (나) 정치인들은 내셔널리즘에 호소하는 선동적인 행동들을 자제하고, 미디어는 시민들이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와 정치적 차원의 협력과 배려를 패러다임으로 발전 시켜야 하며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참신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함
- (다) 미디어의 문제는 사실 미디어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 정치 및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차원의 한일우호가 개선이 되어야 함.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며 일본은 패전임 동시에 광복 70주년이기도 이를 기회로 한일관계의 우호개선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라) 미디어에서도 균형을 맞추어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물론 너무 친한류적인 내용만을 보도한다면 반감을 일으키겠지만, 문화 교류를 진행시킨다는 생각으로 보도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정치적, 법적, 또는 민간차원에서의 한일 간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에 대해

크게 보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마) 보도를 할 때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우호적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 함. 사실 역사, 정치 부분은 어느 정도 민감하고 자극적인 내용의 보도가 생길 수밖에 없음. 하지만 문화 같은 경우, 타 문화를 존중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나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생김. 더 이상 언론이 단기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진정한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음

[첨부]

1.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 참석자 명단
2. 언론보도내용
3. 홍보용 포스터

첨부 1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 참석자 명단

No.	소속	성명	직위
한국측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5명)			
1	경희대학교	김강현	학생
2	중앙대학교	이상협	학생
3	한양대학교	김지수	학생
4	고려대학교	최소정	학생
5	경희대학교	신승엽	학생
일본측 발표자 토론자(5명)			
1	와세다대학	카네코 타카오	학생
2	가쿠슈인대학	후루카와 타쿠	학생
3	추오대학	오타 미츠아키	학생
4	추오대학	오카베 나기사	학생
5	아오야마학원대학	와치 슌스케	학생
No.	소속	성명	직위
참관자(54명)			
1	공주대학교	강경민	학생
2	인천대학교	강수경	학생
3	중앙대학교	곽다빈	학생
4	중앙대학교	구경모	학생
5	Earlham Collage(예정)	기예진	학생
6	건국대학교	김권묵	학생
7	경기상고/KJSFF	김단	학생
8	건국대학교	김소현	학생
9	선린인터넷고/KJSFF	김승연	학생
10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예지	학생
11	덕성여자대학교	김완수	학생
12	한국관광대학교	김원태	학생
13	명지대학교	김유진	학생
14	정화여상/KJSFF	김유진	학생
15	한국관광대학교	김윤희	학생
16	아산고/KJSFF	김현섭	학생
17	서울대학교	김홍준	학생
18	고려대학교	남상일	학생
19	리츠메이칸대학	다케우치 나오타카	학생
20	강남대학교	류승연	학생
21	차의과학대학교	박세홍	학생
22	성공회대학교	박준성	학생
23	한국관광대학교	백지수	학생
24	연세대학교	손효정	학생
25	강남대학교	송연아	학생
26	중앙대학교	수나사카 유키	학생
27	중앙대학교	신재혁	학생
28	고려대학교	신정현	학생
29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쿠츠 유키	학생
30	경북전문대학교	여민경	학생

No.	소속	성명	직위
31	성균관대학교	연수정	학생
32	고려대학교	유병훈	학생
33	중앙대학교	이미희	학생
34	경희대학교	이수정	학생
35	서강대학교	이승주	학생
36	고려대학교	이원진	학생
37	경주정보고/KJSFF	이재민	학생
38	고려대학교	이재윤	학생
39	중앙대학교	이지영	학생
40	건국대학교	이현진	학생
41	그리스도대학교	이호준	학생
42	충북대학교	장용운	학생
43	중앙대학교	전성훈	학생
44	대구대학교	정유민	학생
45	서강대학교	정진명	학생
46	한신대학교	정효경	학생
47	강남대학교	최상현	학생
48	덕성여자대학교	한성임	학생
49	경희대학교	김선경	학생
50	경희대학교	임주영	학생
51	경희대학교	김희진	학생
52	경희사이버대학교	김정숙	학생
53	고등학교	주성익	학생
54	건국대학교	이광형	학생
한일경제협회(11명)			
1	(사)한일미래포럼	양기호	운영위원장
2	Jetro서울	호시나 히토시	소장
3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바야시 나오히토	상임고문
4	경희사이버대학교	오태현	교수
5	SBS	양윤석	부장
6	한경닷컴	임지혜	기자
7	(사)한일경제협회	이종윤	부회장
8	(사)한일경제협회	조덕묘	사무국장
9	(사)한일경제협회	김정호	부장
10	(사)한일경제협회	홍소영	과장
11	(사)한일경제협회	이유경	연구원
일한경제협회(13명)			
1	(재)대한민국일본대사관	카노우 토모야	
2	Nikon Imaging Korea	야마다 코우이치로우	대표이사
3	김□장법률사무소	타카스기 노부야	상임고문
4	Teijin Dupont Films Korea Ltd.	니시야마 마사노리	대표이사
5	한국미쓰비시 상사	이시야마 히로츠크	대표이사 사장
6	한국미쓰비시 상사	코우치 토시오	차장
7	(주)IH	카사이 쿠니타케	소장
8	일본상공회의소	마츠모토 켄지	소장
9	NHK	야노 쇼헤이	특파원

No.	소속	성명	직위
10	동경口중일신문	사마자키 츠구오	특파원
11	(사)일한경제협회	고레나가 카즈오	전무이사
12	(사)일한경제협회	기무라신이치로	이사
13	(사)일한경제협회	김유정	과장

한국경제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 대학생 대토론회, 30일 서울 동국제강 페럼타워에서 개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동국제강 페럼타워에서 개최된다. 양국의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 한일협력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일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 SBS, 동국제강, SJC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이 바라본 한일양국의 비전’을 주제로 진행된다.

토론회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이메일(yklee@kje.or.kr)이나 전화(02-3014-9888)로 하면 된다.

임지혜 한경닷컴 인터넷기자 open@hankyung.com

한·일 대학생 “양국관계 개선되려면 과거사 문제 우선 해결해야” … 한일경제협회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

30일,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대학생 대토론회’ 열려



한국과 일본 대학생 대표들은 한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해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수교 50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서울 동국제강 페럼타워에서 열린 ‘새로운 50년을 향한 한일대학생 대토론회’에서 양국 대학생들은 ‘청소년이 바라본 한일 양국의 비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의 이상협 학생(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1년)과 가네코 타카오 학생(와세다대 상학부 1년)은 한·일 상호발전과 성장을 위해 양국이 취해야 할 노력과 자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협 학생은 “과거사에 얽매인 현재의 한일관계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을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지만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해결하면서 경제, 안보에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위안부 공동특별조사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카네코 타카오 학생은 “정치, 역사, 인적 교류는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 상황에 직면 했다”며 “한일관계가 냉각된다면 그전에 있던 인적교류가 모두 소용이 없게 된다”며 “인적교류를 확대하기 전에 문제의 근본 원인인 역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과거사에 얽힌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오대학의 오카베 나기사 학생(종합정책학부 3)은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한일관계에 개선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카베 학생은 “많은 일본인들이 K-POP과 한국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 국가가 앞장서 시민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면 한일관계 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양국의 얽힌 역사문제를 해결하고 세계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추오대학의 오타 미츠아키 학생(법학부2)은 “각국의 관세가 철폐되고 자유경쟁주의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경제공동체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한·중·일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경제를 견인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세안을 예로 들어 “아세안은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진 나라들로 이뤄져있지만 회원국간 법 없이 상호 동의만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며 “이해관계가 다를수록 존중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일 역시 서로 다른 역사와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융합해 나간다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양대의 김지수 학생(경영학 1년)은 수출 의존국인 한국이 최근 중국과 미국의 성장세 둔화와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4월14일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4%에서 3.7%로 하향 조정 한 뒤 5월14일 다시 3.1%로 내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 등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정체되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언론의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려대 최소정 학생(일어일문학 2년)은 “양국 언론이 판매부수를 높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반일·반한 보도를 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대중들이 객관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한쪽 방향에 치우치지 않는 보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후루카와 타쿠는 2014년 8월3일자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방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언급, 산케이신문이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포함시키고 언론으로서 공정성을 잃고 증권가 '짜라시'를 사실인 듯 보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 “기자간 선입관 없는 상호이해가 구축돼야한다” 며 “양국간 활발한 기자 교류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자” 고 주장했다.

경희대 신승엽 학생(무역학 2년)은 “매스컴의 편파적인 보도는 매스컴 내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며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행동을 자제하고 내셔널리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민사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일경제협회의 이종윤 부회장은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들이 한일관계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뜻을 함께 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다” 며 “아직 전문지식이 부족하지만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편견 없이 바라보는 모습이 기특하고 칭찬할 만하다” 고 평가했다.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대해 이 부회장은 “앞으로 50년 안에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가야한다” 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양국의 산업이 수평구조를 이뤄 상호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라고 강조했다.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경제협회 전무도 “젊은이들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됐다” 면서 “이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한일관계의 미래는 밝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13, 14일 열린 한일경제인회의에서 한일관계가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며 “2002 월드컵이나 한일축제한마당같이 국적과 역사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면 양국관계가 개선될 것” 이라고 밝혔다.

임지혜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

"한·일, 과거사 문제와 경제 분리해 협력해야"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지난 30일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일 대학생 대토론회’에서 양국 간 협력방안 등을 토론했다. 김동현 기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한·중·일 3국에도 도입해야 합니다.” (오타 미쓰아키 주오대 법학부 2학년)

“유럽연합(EU)이 유럽경제공동체(EEC)에서 시작한 것처럼 경제통합은 단계별로 서서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승엽 경희대 무역학과 2학년)

지난 30일 서울 수하동 페럼타워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 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들은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SBS, 동국제강, 서울재팬클럽(SJC)이 후원한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학생들이다. ‘청소년이 바라본 한·일 양국의 비전’이란 주제로 양국 대학생 10명이 발표자 및 패널로 참석했다.

중앙대 아시아문화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상협 씨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은 1965년 한·일수교협정에서 충분히 보상했다고 하는 반면, 한국은 독도와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등은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경영학과 1학년인 김지수 씨는 “동북아 3국(한·중·일)이 암묵적인 패권의식을 버리고 경쟁에서 협력구도로 나아가야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쿠슈인대 법학부 2학년인 후루카와 다쿠 씨는 “양국 국민의 갈등은 한·일 미디어에서 상대방을 향해 날선 보도를 하는 탓도 크다”며 “양국 기자들 간의 상호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한일경제협회는 일본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1981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설립한 경제단체다.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일 고교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상대국을 방문하는 고교생 교류사업 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교류사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대학생 토론회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경제협회가 주최하고 SBS와 한국경제신문사, 동국제강 등이 후원한 한일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이 바라본 한일 양국의 비전'이란 주제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오늘 (30일) 토론회에는 한일학생미래회의 소속 두 나라 대학생 10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한국과 일본의 공동 발전과 성장을 위해 두 나라가 취해야 할 노력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50년에 대한 평가와 한일 관계에 관한 언론의 보도 방향,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노동규 기자

